시 론

한국경제와 환율 이야기

김 일 태
전남대 석좌교수

요즘 한국경제는 1달러당 1천500원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으로 원자재 등 수입 물가가 인상돼 소비자 물가가 상승하고 집값도 오르는 심각한 상황이다. 최근 환율은 내국인 해외 투자의 수급요인이 있지만 미국과 관세 협정 발효, 정부의 구두 개입, 미국 금리 인하 단행에도 불구하고 1천470원대에서 꿈쩍하지 않고 있다. 한국경제는 반도체, AI 등 대기업 중심의 신산업 투자를 유도하는 정부 정책으로 국내주식시장의 주가를 끌어올리려고 시도하지만 환율의 불확실성을 통제하지는 못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고환율의 원인이 서학(西學)개미라고 남 탓만하고 특히 청년층을 겨냥해서 "젊은층, 쿨하다면서 해외투자 유행처럼 번져 걱정"이라며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감정의 언어를 쏟아내고 있다. 이처럼 당국이 허둥지둥하는 사이에 원화 가치는 하락하고 민간은 외환시장의 변동에 따라 원화를 환전해 해외채권 ETF, 달러예금 등의 상품에 투자하는 합리적 행동을 하게 된다. 환율은 두 나라 돈의 교환비율이면서 자국 돈의 대외가치를 의미하고 수요와 공급의 외환시장에서 결정된다.

한국은 해방 이후 고정환율제도를 채택하다가 1964년 5월부터 단일변동환율제도, 1980년 2월부터 복수통화바스켓제도, 1990년 3월부터 시장평균환율제도로 변경됐고 IMF 외환위기로 1997년 12월부터 자유변동환율제도로 바뀌었다. 1964년부터 도입한 단일변동환율제도는 1972-74년 동안 1달러=400원, 1975-79년 동안 1달러=484원으로 미국 달러를 계단식으로 고정했다. 이 제도는 고정 환율로 2차례의 오일쇼크로 인한 석유가격 인상을 반영하지 못해 1980년 환율을 580원으로 대폭 인상하고 달러화와 엔화에 치중하는 제도로 바꿨다. 1990년 정부는 시장평균환율을 고시하고 10%내에서 변동하는 제도로 변경했지만 1997년 외환위기로 환율이 2배 가까이 폭등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지금의 자유변동환율제도를 채택했다.

이제 그동안 환율 상승에 대해서 정책당국은 명확한 정책적 원인을 제시할 기회이다. 현재 한국(2.5%)과 미국(3.5%-3.75%)의 금리 격차는 1.25%포인트로 좁아졌다. 그러나 시장과 민간은 그동안 금리 격차가 40개월 이상 장기화되면서 주식시장의 순매도와 채권시장에서 자금이 이탈해 달러로 들어가고 달러 관련 상품에 투자하게 돼 원화 약세가 이어졌다. 다음으로 지난 3년 동안 금리 인하와 동결로 시중에 풀린 통화량(M2)은 20% 이상이고, 미국 3%에 비해서 돈이 과도하게 빠른 속도도 풀려 대출도 늘어나고 환율도 상승했다. 시장은 통화량 증가로 새 돈이 시중에 풀려 유동성이 풍부했지만 시중 은행을 통해 우량 고객에게 유리한 부동산을 구입하는 대출 금리로 배분되거나 해외로 빠져나가고 힘든 서민들에게는 정책 금리를 제외하고는 고금리상태로 빈약한 수준의 자금만이 흘러갔다. 이처럼 금리와 통화량(물가)은 환율 변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본질적인 사실이다.

이런 환율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외환시장에서 달러 공급처인 수출 대기업은 달러 공급을 축소시키고 개인과 기관은 달러를 매입해 해외 투자의 행동을 하게 된다. 이것은 대기업 중심의 수출기업들은 지속적인 금리 격차와 트럼프 2기 관세로 공급망의 다변화에 따른 현지 공장 투자를 위해 원화로 바꾸지 않고 달러를 보유한다. 특히 국민연금은 25년 58%인 771조원 해외 투자로 수익 극대화로 연금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전략이다. 이런 점에서 정부가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비중을 감소시키거나 서학개미를 비난하는 것은 지엽적이다. 우리는 1997년 외환위기를 돌아보아야 한다. 1997년 외환위기는 지속적인 경상수지 적자상황에서 정부가 원화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대외부채 지급 보증함으로써 국제금융기관의 기업 단기외채 상환연장을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1997년 환율이 1달러당 1천962원으로 폭등하게 됐다. 현재의 위기는 2천조원이 넘는 가계 부채로 개인과 가계가 파산하는 것에서 시작될 수 있다.

이제 정부와 한국은행은 정책적 처방을 내놓아야 한다. 저성장과 저출생 및 고령화의 추세에서 정부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방향을 짚어보아야 한다. 정부는 확장적 재정정책이 환율을 상승시키고 적자 재정으로 차입 비용이 늘어나 국채 투자가 외국인에게 집중될 수 있으므로 원론적인 재정의 역할을 점검해야 한다. 한국은행 통화당국도 과도하게 시중에 풀린 돈이 부동산과 주택 구입의 특정 자산에 치중하는 것을 통제하고 국내 신산업과 인프라에 투자하고 서민들과 소상공인의 생계와 자립을 유도하도록 자금을 배분해야 한다. 결국 환율의 안정은 한국경제의 성장을 견인하고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신뢰의 정책을 보여주는 것이다.

기 고

광주 남구 경로당이 변하고 있다

나 경 택
대한노인회 광주남구지회

흔히 경로당이라고 하면 어르신들이 모여 TV만 보고 화투를 치거나 소일거리를 하는 곳으로 떠올리기 쉽다. 하지만 이제 경로당은 더 이상 옛날의 그 모습에 머물러 있지 않다.

광주 남구 경로당들은 배움과 나눔, 문화 공간으로 유쾌한 변신을 거듭하며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할머니 합창단을 만들어 노래를 배우고 도서관을 꾸며 책을 읽는다.

합창으로 되찾은 청춘 효천남해오네트 경로당이 있는 아파트 1단지에 들어서자 아름다운 목소리의 노랫소리가 들린다. 그곳으로 발길을 돌리니 경로당에서 할머니들이 노래하고 있다. 할머니들이 부르는 노래는 '나는 행복한 사람'(이문세 노래), 'Top of the world'(카펜데스 노래) 그리고 중국 가요 첨밀밀(甛蜜密) 등이다.

이곳 경로당 박광희(79) 회장은 30년여 군생활을 하면서 익힌 노래와 지휘 등을 살려 코로나19가 끝나는 2022년 5월 할머니 회원 14명으로 합창단을 꾸려 매주 화요일 오후 2시간씩 노래 연습한다. 그해 12월 으뜸효남구TV가 주최하는 노래자랑에 나가 수상해 대한노인회광주남구지회장(지회장 나각균)이 수여한 트로피를 받았다.

박 회장은 노래뿐만 아니라 인문학 등 교양강좌를 열고 아파트 내 저탄소 등 기후 환경 변화를 위해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주위에 꽃길 조성과 잡초 뽑기, 무궁화 300여 그루를 심었다고 자랑한다. 이에 따라 관공서에서 포상금으로 받은 상금으로 음향기와 노트북 등을 사들이고 대중가요와 동요 팝송 중국 가요 등 130여 곡이 수록된 노래책도 만들어 즐겁게 노래한다.

합창단 회원은 74-83세 할머니들로 구성됐다. 황다순(83) 할머니는 노래책이 든 가방을 들고 경로당에 오는 재미가 쏠쏠하다. 회원 생일 때는 떡과 과일을 나눠 먹고 할머니가 아닌 언니, 동생이라고 불러 멀리 떨어져 사는 형제보다 더 낫다고 말한다.

나이가 가장 젊은 고영동(74) 할머니는 노래를 즐기면서 마치 신세대들이 모여 사는 것 같다. 친형제나 마찬가지다. 노래할 때 화음이 틀려도 언니들이 고쳐주는 등 이해를 많이 해줘 너무 좋다.

조효일(82) 할머니는 고교 시절 피아노를 전공했다. 경로당에서 취미활동으로 노래를 부르니 너무 좋다. 그 기분으로 집에 가서도 피아노를 치며 혼자 노래를 부른다.

2만8천여 권의 보물창고 봉선2동 금호타운 경로당에 작은 도서관이 들어서 주민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는 이 도서관 이름은 '한솥밥 도서관.'

이 작은 도서관에는 사진으로 본 광주 100년 등 사진집과 역사책 종교서적 자서전 전통과 문화 여행 각종 소설과 삼국유사 삼국사기 북한 관련 서적(200권) 전집(태백산맥 아리랑 등) 주식 등 경제 관련 서적 인터넷 어린이 동화집 등 모두 2만8천여 권이 비치돼 있다. 어린이 서적은 글씨가 커서 어르신들이 읽기에 좋고 영어책(유아용과 초급자용)은 어린이를 둔 젊은 엄마들이 찾아와 읽는다.

이 경로당 문재일 회장은 관할 봉선2동사무소가 매월 발행하는 소식지에 한솥밥 도서관에 책을 기증해 주라고 광고한다. 또 인근 주민들이 이사 갈 때 버리거나 알려주면 손수레를 끌고 가 각종 책과 책장을 싣고 온다. 자신이 먼저 책 800권을 기증하고 아파트 주민과 이웃들이 기증한 책으로 자본 하나 들이지 않고 '한솥밥 도서관'을 만들었다고 자랑한다.

경로당에 도서관을 만든 이유에 대해 문 회장은 "5년 전 코로나로 주민들이 밖에 나가지 않고 집안에만 계시거나 경로당에서 TV나 고스톱을 하고 있어 도서관을 만들기로 했다"면서 "어르신들을 위해 돋보기 여러 개도 준비했고, 이제는 많은 어르신들이 책을 읽는다"고 말했다.

"사람이 책을 만들고 책이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다.

경로당에 있는 '한솥밥 도서관'을 찾은 김응님(88) 할머니는 남들이 버린 깨끗한 책을 우리는 보고 읽는 재미가 쏠쏠하다고 말하고 늙어도 배운다는 정신으로 책을 정성껏 읽는다고 말했다. 문덕심(94) 할머니는 안경을 쓰지 않고 책을 읽는다고 자랑하며 도서관을 만들어준 경로당 문 회장에게 항상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경로당은 이제 '함께 사는 즐거움'을 알려주고 더 이상 시간만을 보내는 장소가 아니라 '함께 성장하고 배우는 곳'으로 변모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노년을 외로움이 아니 배움과 문화로 채우고 친목을 넘어 공동체적 삶의 가치를 실현하는 이 경로당의 변화는 우리 사회의 어르신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앞으로 경로당이 세대와 지역을 잇는 따뜻한 소통의 공간이자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년을 위한 든든한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

독자투고

생명을 구하는 첫 번째 손길, 바로 우리 이웃입니다

응급환자를 살리는 힘은 전문 장비나 구급대원의 기술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사고 순간 가장 먼저 환자 곁에 있는 '목격자', 바로 군민 여러분이 더 큰 생명선이 될 수 있다.

해남군은 넓은 농경지와 산림, 해안이 공존하는 도농복합 지역으로, 외곽 마을이나 농작업 현장에서는 구급대 도착까지 시간이 소요될 때가 많다. 고령 인구가 많은 지역 특성상 심정지·호흡곤란 등 급성 질환 발생 위험도 더 높다. "목격자가 곧 생명선이다"라는 말이 있다. 실제로 최초 목격자에 의해 심폐소생술이 신속하게 시행돼 생명을 살린 사례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

가장 확실한 생명 지킴이는 바로 군민 여러분이다. "지금, 내가 시작한다"는 용기가 곧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힘이다.

〈박춘천·해남소방서장〉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社 說

여순사건 진상규명은 국가의 책무, 소멸시효란 없다

전남도가 여수·순천 10·19사건 피해자 명예회복과 위령사업 등에 총력을 펼치겠다고 다짐했다. 권리구제의 신속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무부가 국가배상 소송에서 항소를 전면 취하하고 상소 제기를 포기한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법무부는 2심 재판 중인 12건(195명)은 모두 항소를 취하했다. 1·2심 선고 사건 22건(339명)에 대해서도 상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매우 뜻깊다. 전남도는 국가의 책임 이행을 위한 중요한 진전이자 특별법이 지향해 온 명예회복·치유의 정신을 구체화한 상징적 조치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억울한 죽음과 고통 속에서 오랜 세월 진실을 기다려온 만큼 실질적인 위로가 되는 중대 전환점이라는 평가가 합당해 보인다.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 심의·결정 건수가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금까지 총 7천493건을 처리, 전체 신고 1만879건의 약 69%를 완료, 올해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한편으로 더불어민주당 권향엽(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의원은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제77주기 합동추념식을 통해 지역사회가 역사적 의의를 다시 확인했으며, 평화문학상 공모 등 문화사업을 통해 미래세대와 함께 기억하는 사회적 기반을 넓히고 있다. 추념식을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기억하는 전국적 행사로 발전시켜 국가 차원의 화해의 의지를 모아야 한다.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자행된 대표적인 민간인 집단 학살이다. 부당하게 인간의 존엄, 인권을 침해했다. 늦었지만 마땅히 바로 잡아야 한다. 이것이 곧 정의다. 이재명 대통령은 엄중한 책임 의식을 갖고 다시는 무고한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을 약속했다.

앞으로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희생자·유족 명예회복 절차, 위령 및 치유·기억사업 등이 차질없이 추진돼야 한다. 당연한 국가의 책무다. 결코 소멸시효란 없다. 완전한 진상규명을 위해 끝까지 노력해야 할 것이다.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와 회복의 길로 들어서야 한다. 결코 소멸시효란 없다. 유족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아픔을 공유함으로써 궁극의 통합으로 나아가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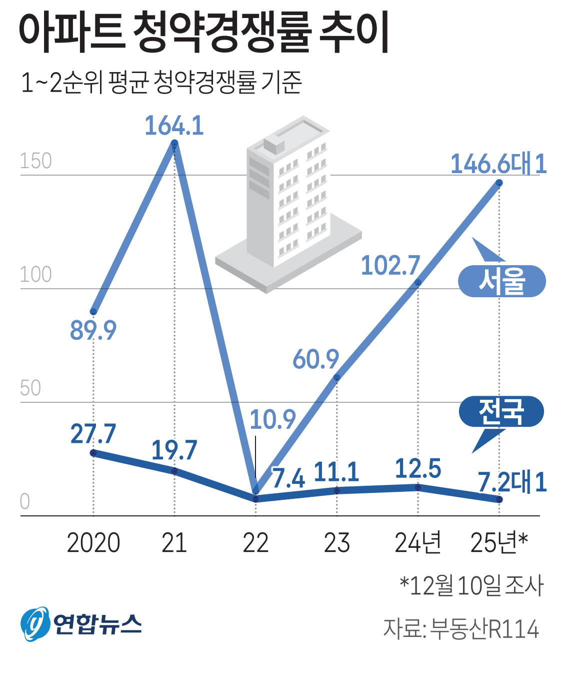
함평 이전 국립축산과학원 보상 갈등 조기 수습을

함평군사회단체협의회가 최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발송한 서한문을 통해 "정부는 주거 단지 조성 계획만 내놓았을 뿐 정작 쫓겨나는 이주민들이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할지에 대한 생계 대책은 전혀 없다"며 성토하고 나섰다.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에 따른 피해보상을 강력히 요구한 것이다. 2027년까지 함평군 신광면 송사리 일원에 스마트 연구의 핵심 거점을 만드는 사업이다. 하지만 젖소와 돼지 등 시험연구용 사육을 위한 '가축 방역계(방역대)'로 부지 반경 3㎞ 내에 포함되는 신광·손불·군남면 일대 약 2천만평이 묶이면서 해당 지역 농가들은 생존권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2019년 9월 함평군과 축산과학원은 자원개발부의 원활한 이전을 위한 세부 합의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이주 지역민 갈등 조정과 지원, 주변 방역대책, 진입도로 개설 등 인프라 조성 등 8개 항을 성실히 이행키로 했다. 축산과학원, 전남도, 함평군은 부지 편입 주민이 소외되지 않고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생활 안정을 최우선적으로 강구하기 위해 수차례의 실무협상을 거쳤다고 밝혔다. 그런데 주민들은 대규모 국책 사업 아래 '특별한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호소한다. 단순히 기관이 옮겨오는 차원을 넘어 막대한 재산권 침해 우려에 분통해한다. 뒤늦게 잡음이 일고 있다. 협의회는 생계 유지를 위한 스마트팜 30만평, 방역대 밖 축사 15만평 마련, 정주여건 및 생계 대책 조속 해결 등 '특별한 보상'을 촉구하는 중이다.

축산자원개발부는 가축 개량, 초지·사료, 스마트 축산 등을 연구하고 있다. 당초에 함평이 새로운 미래축산 연구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자원개발부 직원 202명 이주, 매년 200억원의 지역경제 유발효과, 전남도내 농가와 협업을 통한 맞춤형 기술 향상 등으로 경쟁력 강화에 대한 기대가 크다. 불필요한 논란을 조기에 수습해야 하는 것이다. 그동안 제시된 각종 시책이 적극 반영돼 적기에 추진돼야 한다. 일부 미흡한 방안에 대해서 보완하는 노력도 중요하다. 4개 마을 주민 187명이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게 됐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는 요구를 더 경청해주길 바란다.

그래픽 뉴스



올해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전국적으로 3년 만에 한 자릿수를 기록했지만, 서울의 경우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으로 올해 전국 아파트 평균 청약 경쟁률은 7.2대 1로, 2022년(7.4대 1) 이후 3년 만에 한 자릿수를 나타냈다.

수도권이 10.1대 1, 지방이 4.5대 1을 기록해 권역별 경쟁률이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특히 같은 기간 서울의 평균 청약 경쟁률은 146.6대 1로 집계돼 2021년(164.1대 1)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아울러 올해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은 22만6천719가구(예정 물량 포함)로, 지난해(24만4천625가구) 대비 감소했다. 올해 반기별 물량은 상반기 7만255가구, 하반기 15만6천464가구로 전체 공급의 약 69%가 하반기에 집중됐다.

또 주택 공급의 선행 지표로 간주하는 착공 실적은 2022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으로 30만가구를 밑돌 것으로 관측됐다. 국토교통부 주택 통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0월까지 전국 아파트 착공 물량은 16만2천496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18만7천244가구) 대비 13.2% 감소했다. /연합뉴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 장 馬亨列 사 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국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정치부	650-2030	사진부	650-2080	마케팅본부	650-2070	광고국	650-2016
경제부	650-2050	논설실	650-2006	경영지원국	650-2011	편집국	650-2017
사회부	650-2040	TV본부	650-2009	사업본부	650-2007	업무국	650-2019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무국	650-2020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 가10(日刊)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CMYK